

나

노이무공(勞而無功)과 천지성공(天地成功)

Noiimugong and Cheonji-Seonggong

목차

- 1 연구 배경과 목적
- 2 핵심 개념 소개
- 3 동학사상의 노이무공
- 4 대순사상의 천지성공
- 5 전통 귀신 개념과 노이무공
- 6 동학과 대순 지계관의 차이
- 7 일본관의 대비
- 8 결론 및 시사점

연구 배경과 목적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은 한국 근대 사상의 토대를 이루는 대표적 사상으로, 이들의 '땅'에 대한 관점(地觀)은 중요한 차이점을 보임
- 노이무공(勞而無功)과 천지성공(天地成功)은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지관(地觀)에 있어 그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핵심 용어
- 두 개념의 비교를 통해 한국 근대 사상의 지관 변화와 그 철학적·역사적 의미를 고찰하고 현대적 의의 탐색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차지관(地觀)에 있어 그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용어가 노이무공(勞而無功)과 천지성공(天地成功)이다."

핵심 개념 소개: 노이무공과 천지성공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지관(地觀)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 용어

노이무공(勞而無功)

-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의미
- 천외천이 신명으로만 출현한 동학사상에서 사용
- 성공의 사례가 없었음을 의미
- 전통 음양오행 개념과 대비됨

천지성공(天地成功)

- 구천의 인신강세 이후 천지에 대한 표현
- 천지가 역할 분담하여 일을 이룸
- 땅과 하늘의 음양합덕으로 지상천국 실현
- 천주의 성공을 의미

"전통 음양오행에서 천지성공과 대비되는 용어는 천지화육이다. 천원지방, 천도지덕과 같은 이상적 삼재개념에서 천지는 가문의 성공을 위해 자식을 키우는 부모와 같이 인간을 화육하여 천지를 성공시키고자 한다."

동학사상의 노이무공(勞而無功)

- 노이무공(勞而無功):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천외천이 신명으로만 출현한 동학사상에서 자신의 업적을 설명한 용어
- 동학에서는 천주(天主)를 귀신(神明)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천주의 노력은 있었으나 성과는 없었다는 의미전통
- 음양오행에서 천지화육(天地化育)이나 천원지방(天圓地方)과 같은 이상적 개념과 대비됨
- 동학사상의 노이무공은 대순사상의 천지성공을 이해하는 관문이 되며, 천지성공은 땅과 하늘이 음양합덕되는 지상천국을 의미

“동양사상에서 천원지방과 같은 천지에 대한 많은 용어가 있음에도 천지성공에 대한 개념의 단초가 나오는 곳은 동학사상이 유일하다.”

대순사상의 천지성공

- 천지성공(天地成功): 구천의 인신강세 이후 천지가 역할을 분담하여 일을 이루는 개념
- 대순사상은 억음존양(抑陰尊陽)을 정음정양(正陰正陽)으로 바꾸는 천지공사를 통해 전통적인 지관을 실체화
- 삼신산에서 출발하여 부모산인 회문산과 모악산 정비, 산왕과 해왕의 혈자리 정렬
- 음양오행의 중심인 '토(土)'의 중요성 강조 - 구천의 역할이 천지성공에 중요

"천지 음양합덕의 결과인 지상천국은 삼계가 상관적으로 작용하는 대순사상의 지계관을 대표한다."

전통 귀신 개념과 노이무공의 의미

주자학적 귀신 개념

- 주자: "귀신과 관계되는 일은 본디 제이의적인 것이다. 형체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귀신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 송명리학에서 본체론적으로 '이(理)의 체(體)'가 무(無)이고 허(虛)로 인식
- 귀신론은 일상적 '사(事)'를 익히는 소학 단계가 아닌, 마음으로 '이(理)'를 궁구하는 대학단계의 담론

동학의 천외천과 노이무공

- 동학사상에서 귀신은 천외천(天外天)을 의미하며, 천지를 천주 즉 귀신으로 깨닫는 과정에서 노이무공 개념 등장
- 천외천이 신명으로만 출현한 동학사상에서 자신의 업적을 '노이무공(勞而無功)'으로 설명
- 노이무공은 성공의 사례가 없었다는 의미로, 이는 후에 대순사상의 천지성공을 이해하는 관문이 됨

"동학사상에서 노이무공은 천지를 천주, 곧 귀신으로 깨닫는 장면에서 나타나므로 노이무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동양의 귀신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계관 및 일본관의 대비

지계관(地界觀) 비교

동학사상

- 땅의 생명사상 강조 형태로 이해됨
- 한국 유기농 농법과의 연관성
- 하늘 중심의 사상으로, 땅에 대한 강조는 상대적으로 미약

대순사상

- 삼신산과 부모산(회문산, 모악산)의 재정비
- 지계공사를 통한 지기(地氣) 조정
- 지상천국 실현을 위한 지기통일공사

일본관(日本觀) 비교

최수운(동학)

- 임진왜란 때 침략한 원수로 인식
- "개같은 왜적놈아"라고 표현할 정도로 적대적
- 조상 진립(震立)의 항일 무공에 대한 자부심

증산(대순사상)

- 일본에 대적하지 말고 순종할 것을 주장
- 조선을 일본에 맡기는 공사를 봄
- 일본의 패망과 "품삿도 못 받고 돌아갈 것" 예언

동학과 대순사상의 지계관 및 일본관은 각 사상의 시대적 배경과 철학적 기반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며, 이는 실천적 측면에서의 다른 접근으로 나타남

결론 및 시사점

- 노이무공과 천지성공은 동학과 대순사상의 세계관 및 실천의 차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핵심 개념임
- 동학은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노이무공'으로, 대순은 구천의 인신강제 이후 천지가 함께 이루는 '천지성공'으로 지관을 표현
- 천지성공은 기존 동양사상의 천원지방, 천도지덕을 넘어 음양합덕과 삼계개벽을 통해 지상천국을 실현하는 개념으로 발전
- 현대 생태학적 위기와 물질문명의 한계 앞에서 지계(地界)의 재발견과 조화로운 지상천국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철학적 기반 제공

연구의 의의: 노이무공과 천지성공의 비교를 통해 한국 근대 종교사상의 지관(地觀) 변화를 추적하고, 현대 한국 사상에서 지계(地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 마련